

화순의 역발상...바다 없지만 대규모 수산식품단지 만든다

연구·가공·유통 등 6차산업 모델
내수면 양식·수산식품 거점으로
약취 민원 온상 농주 양돈단지 탈바꿈
140억원 투입 연내 공사 마무리

바다를 끼지 않은 내륙의 지자체가 역발상을 통해 6차 산업 모델인 대규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내수면 어업과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연내 마무리한다.

수산식품산업단지는 농주면 정남리와 남정리 일대에 국비 70억원 등 140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3만

1060㎡ 규모로 건설된다. 건축물 2개 동에는 수산식품 연구·개발, 가공, 유통·판매·전시시설,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화순군은 오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수출에 특화된 가공시설을 운영한다.

먼저 수산물을 활용한 전남 유일의 '소스 전문 수산식품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 초기에는 액젓, 맛간장, 굴소스, 해조류 장아찌 등 일반적인 '액상형 소스' 생산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용수공급 시설, 판매 시설, 양식장 등 3만3500㎡ 규모로 조성한다. 부지 중 2만여㎡는 내수면 어업인에게 분양해



화순 농주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감도.

메기, 새우, 뱀장어 등 토종 어류 양식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영세하고 낡은 양식 시설을 규모화 해

내수면 어업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은 화순군의 역발상으로부터 시작됐다. 바다는 없지만 내륙의 중심지이면서 대도시와 인접한 화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면 전남지역의 수산물 공급·유통에 유리하고 생산·가공·유통·판매·연구개발 시설의 집적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화순군은 여기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협력해 지역 특화 건강식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체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

근의 조광조유서지, 주자묘, 운주사,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 도곡온천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식단지와 수산식품단지가 들어설 부지는 약취 민원의 온상이었던 농주 양돈단지 일대로, 미래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면서 약취 문제를 해결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프로젝트여서 모범이 되고 있다.

구축된 화순군은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해 내수면 어업과 수산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주민 소득원을 창출하겠다"며 "인근의 문화관광·역사문화 자원을 거점단지와 연계해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6차 산업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산 보리·귀리로 수제맥주 만들면 어떨까요”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226건 접수
수상작 18건 등 우수제안 25건 채택

“강진의 우수한 발효산업과 농산물 가공을 활용해 수제맥주를 만들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진군의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지역맥주 생산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우수작으로 채택됐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에 총 226건이 접수됐다.

강진군은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능률성 등 심사 기준을 토대로 평가해 57건의 예비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후 부군수 주재로 제안심사위원회 실과소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심의회”를 열어 최종 25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심사 결과, 강진의 보리나 귀리를 활용한 수제맥주 제조·판매 제안인 '가우도 수제맥주 로컬 브루



강진군은 최근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제안 18건을 선정, 수상했다.

<강진군 제공>

어리(local brewery)'가 은상을 차지했다.

또 도로변 경계석 형광스티커 부착, 자전거도로 구간별 테마 및 명칭 설정, '강진 목은지' 산업 육성 등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은 총 18건이다.

아쉽게도 대상인 금상은 선정되지 못했다.

강진군은 하반기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

를 10~11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훌륭한 정책과 서비스로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5% 올려 85% 지원

유기농 인증 농가는 전액

장성군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장성군은 호우, 폭염,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올해 1800ha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80%이던 보험료 지원 폭을 군비로 5%를 인상해 총 85%까지 확대 지원한다. 유기농 인증 농가는 장성군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 신청은 작물별 수확기 재해 발생 시기를 고려해 각각 달리 접수 받는다.

벼 가입 신청은 26일까지이며, 콩은 7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양파와 마늘은 10~11월, 포도·복숭아는 11월에 가입할 수 있다. 시설 원예작물은

11월 27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6월 현재 사과·배·단감·원예시설 작물 등 1113ha, 1473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해 목표대비 61.8%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1656농가(1704ha)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805농가에서 43억1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농업재해보험은 농지 주소지 농협에서 취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꽃망울 터뜨린 수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24일, 함평군 함평엑스포공원 연못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수련이 빗방울을 머금고 있다. <함평군 제공>

담양 봉산면 8개 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담양군 봉산면은 비닐하우스 시설단지 등 농업 폐기물의 수거를 위해 8개 마을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총 4000만원을 들여 수거작업이 용이한 상부개방형으로 설계해 곡정, 탄금, 반월, 연동, 마산, 양지, 와우, 삼지 마을 등 8개 마을에 설치했다.

농업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환경 오염, 불법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 야간 소각으로 인한 산발 발생, 하천변 방치에 따른 용수로 막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오는 7월부터 이용이 가능해 오랫동안 농촌 들판, 공한지, 하천변, 야산, 마을주변 등에 버려진 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김민지 봉산면장은 “농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깨끗한 농촌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나주시사랑상품권 10% 할인
9월까지 3개월 연장키로

나주시는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나주시 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를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할 상품권은 180억원 규모로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 순환 경제체제 구축, 카드 수수료 절감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

나주시가 최근 가맹점 100곳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상품권이 본격 지급된 4~5월에 매출이 급증했다.

현재까지 판매한 상품권은 120여억원이며 농어민 공익수당,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더하면 435억원에 달한다.

시는 앞으로 정부 지원 상황을 감안해 10% 할인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